

같이 보기

: 근로자건강센터 개소





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로자건강센터가 충북에도 들어섰다.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는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는 충북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.

글 손은경 사진 김지원

산업재해
사각지대 해기결사

충북 근로자건강센터 개소



센터 회의실 전경



센터 체력단련실 전경

같이 보기

: 근로자건강센터 개소

충북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소규모 사업장 무료 이용 가능

대한산업보건협회가 수탁·운영하는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7월 30일,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미래누리터에서 문을 열었다. 이를 통해 충북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직무 스트레스나 작업과 관련된 질환 등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.

충북지역의 경우 최근 업무상 질병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간적·비용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웠다. 이에 충청북도는 근로자건강센터 신규 설치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수행기관으로 발굴, 청주시와 함께 파트너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20년 신규 근로자건강센터를 유치하게 되었다.

01 ____ (왼쪽부터) 이태웅 충북 근로자건강센터장,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,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,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,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

01





- 02 __ 인사말 중인 백헌기 회장
- 03 __ 개소식에 참여한 내·외 귀빈
- 04 __ 센터를 둘러보고 있는 백헌기 회장, 박두용 이사장
- 05 __ 신동주 부센터장의 안내를 따라 센터 체력단련실의 시설을 체험하는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

아울러 대한산업보건협회 역시 건강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각지대 근로자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.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는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중 최대 면적인 1,000㎡를 자랑하며, 충북지역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단체 예약 시 건강센터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는 등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.

같이 보기

: 근로자건강센터 개소



01



02



03

01 ___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를 이끌어 갈 산업보건 전문가들.
(왼쪽부터) 김세연 작업치료사, 신아정 간호사, 김아련 팀장,
신동주 부센터장, 이다혜 심리상담사, 최윤선 물리치료사

02 ___ 운동상담실에서 상담 중인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김세연 작업치료사

03 ___ 근로자 심리상담중인 이다혜 심리상담사

04 ___ 충북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로자건강센터 직원들



전문의 및 간호사 등 각분야 전문가 7인 상주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 당부

이태용 센터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 및 간호사, 운동처방사, 산업위생기사, 심리상담사 등이 상주해 종합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,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.

제공하는 서비스로는 ▲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의 상담 ▲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상담 ▲작업환경 컨설팅 ▲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▲안전보건 전문교육 등이 있다.

충북 근로자건강센터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창2산업단지 내 2만 여명의 근로자는 물론 도내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.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적극 이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.

이태용 센터장은 “충북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언제든 신체·정신적 문제를 상담하는 등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”이라며 “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 📱